

지역 소식통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어려운 농가 돕기 동참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고통을 겪는 시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일천 오백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어 관료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 농산물로 대체했다.

최희석 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김제시민으로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상생하여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농반기 일손돕기 추진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농촌지원과에서는 봉남면 행촌리 생강포장에서 농반기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들의 출국으로 노동인력이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많은 현실에 농촌지원과원 15명은 생강포장 벚꽃 피복작업을 지원하였다.

일손부족에서도 어렵게 정직한 생강에 벚꽃을 피복함으로써 잡초발생 억제 및 토양조건을 막는 효과가 있어 초기 생육이 좋아진다고 한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으면서 농촌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행정을 통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민주당-김제시 당정협의회

지역현안 해결 ·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 대책 · 내년 국가예산확보 위해 힘모으기로

김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김제 발전과 코로나19 대응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이원택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및 당 관계자와 김제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현안 및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제시는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황산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청소년 성장-up 바우처 지원사업' 등의 지역현안 해결의 필요성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추진중인 특수시책(청년주택수당, 청년인턴지원제 등)을 보고하고 인구유출 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한 지역정책 마련의 당위성을 설명,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신종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협업촉진사업' 등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조 전략을 논의하고, 시장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중인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경제위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당·정이 공조하기로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이원택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택 국회의원 당선인은 "김제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의 폭을 넓히며 김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김제시의 발전과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원스톱 서비스 '호응'

1회 방문 즉시 지급 가능... 주민 편의 높여

완주군이 지난 3월부터 전입장려 지원금 배부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의 전입장려 지원금은 민원인이 신청을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차 방문을 한 후, 수령을 위해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 신청서 취합 후 배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지역상품권을 배부한 후 민원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즉시 지역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궁화 대표도시 완주, 무궁화 벽화 작업 완료

나라꽃 무궁화 대표도시 완주군이 군청 진입로 주변에 나라꽃 무궁화 벽화 작업을 완료했다.

벽화에는 무궁화 전국지도,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들과 말뚝박기 놀이 하는 아이들 등 무궁화와 어우러져 함께하는 그림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벽화 작업에는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 목공예사업단이 참여했다.

완주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무궁화 1만100리길(17번국도)의 무궁화 1만4000본에 비료주기 및 전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용진교차로에는 무궁화동산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완주군, 1만여명 학생 가정에 양파·감자 등 최대 9개 품목 전달

완주군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가정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개학이 연기돼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공급업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한다.

대상은 완주군 내 유치원, 초·중·고 86개교 1만699명 학생이다. 농산물 꾸러미는 관내에서 생산되

는 양파, 감자 등을 포함한 7~9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농산물 꾸러미는 한 개당 3만2000원 상당(택배비 포함)의 가격으로 오는 5월 6일부터 22일까지 학교별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이 학교 급식용 농산물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가정 내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더불어 "어려운 취약계층 등 급식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학생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공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개학 연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학교 무상급식을 '농산물 꾸러미'로 전환해 5월 1일부터 배부를 시작했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북도와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으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를 돕고,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98개교 7,800여명을 대상으로 3만2,000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한다.

꾸러미는 친환경쌀, 잡곡류, 채소류, 로컬 가공품 등으로 구성되며, 김제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에서 택배를 이용해 각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지자체와 김제교육지원청 각각 50%씩 지원하기로 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산물 꾸러미 배부를 통하여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위기극복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 일부 재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최근 일부 재개했다. 실외활동과 비대면이 가능한 5개사업 423명을 대상으로 일부 일자리사업을 재개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 장기화와 고독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활동장소가 야외이거나 대민접촉이 제한적이고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김제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으로 늘푸른두부, 시니어건강원, 늘푸른 공동작업장, 사계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계절농장 사업단은 휴경지를 활용하여 각 마을 특색에 맞는 농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여 공

동작업 물량을 수확, 판매하여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단이다.

참여자들은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방역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 제공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중단 장기화로 소득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외활동 및 비대면이 가능한 사업부서 재개하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모든 사업이 정상화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